

<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참고 기도문 >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영이 휴거되는 때, 6000년 종교역사 이후 처음 있는 때로서 누구에게나 최고로 좋은 기회의 때일진대, 이 기회의 때를 잡고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매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광돌릴 수 있도록 새벽의 귀한 제단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람같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귀한 시대말씀으로 구원자를 통해 잡게 해 주셨사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감사드리며, 더 귀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 뜻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부지런히 휴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보잘 것 없이 평범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높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을 귀히 보며, 인생의 최고 가치있는 기회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성약의 휴거역사를 신령한 기도와 진실된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성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기회의 축복을 준비를 많이 하고, 깊이 기도드리며, 기술도 배우고, 금식기도 * 절식기도 조건도 세워가며 지식을 갖춰놓고 기다려 더 큰 기회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서 사는 작은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큰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자의 몸으로 직접 역사해 주시는 분체를 깨닫고 모시게 살게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를 깨달았다고 하나, 우리의 낮은 차원에서 깨달아 부족할 때가 많사오니 그와 같이 인생의 노정을 깊이 겪고 한없이 하늘 앞에 드림으로 더 온전히 그의 근본을 깨달아 휴거의 차원을 높이고, 더 뜨거운 역사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진정 믿습니다. 봤을 때가 기회이며, 들었을 때가 기회이며, 가까이 있을 때가 기회라 하셨사오니 천년 역사 가운데 그가 살아계시는 당세의 최고 휘날리는 이 순간들의 소중한 기회를 결코 흑암과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의 귀함과 가치를 더욱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 성삼위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를 모시고, 그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진정 받은 사랑만큼 기도해 드리며, 보답해 드리는 진실되고 정직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절대적인 온전함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부를 만한 기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을 부르며, 그 때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때를 놓치지 않아 산을 뚫듯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백지장을 들듯이 가볍게 기회를 잡아 잘 된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구원자가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지혜와 슬기를 얻게 하시어 그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모시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잠언말씀에는 손에서 놓으면 잃어버린다, 마음보다 욕이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도, 성자도, 주도 몸에서 손에서 뇌에서 놓치 말라 하셨사오니 단 한 순간도 주를 잊지 않게 하시며 단 한 순간에 흑암의 영들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심정일체, 사랑일체, 행동일체 되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의 몸부림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잡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잡아 행실로 확인하며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가슴이 움직이는 불타는 사랑의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높은 차원에 올라갈수록, 영계로 보고 가르칠수록 자세히 근본을 가르쳐 준다 하셨는데 늘 우리 가운데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인생의 참된 길을 신령하고 깊이있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분의 고독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희생해주시는 사랑만큼 더 그를 사랑해 드리고, 위해드리고, 심정을 알아드려 온전히 잘 모시겠습니다.

늘 신령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셔서 생명을 살리는 깊은 말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슴아픈 일과 심정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분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더욱 굳건하게 반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 하시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 하시면서 사생결단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계시오니 철구같은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의 욕신이 되어 불철주야 뛰고 달리는 두 증인 가운데도 사명의 능력과 빛을 발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생활 가운데 몸부림으로 하늘 앞에 영광돌리는 섭리사 형제들 가운데도 감동과 행함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성삼위 앞에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